



광남일보



“5·18 현장서 ‘광주 공동체’ 정신 느껴”
동구 오월 기억여행...전일빌딩·주남마을 방문

5



광주경총 가입 회원사 800개사 돌파
이사회 성료...양진석 회장 취임 2년 만 성과

7



영광군,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영산 월평마을에 54억 투입...전국 최대 3MW 규모

8



진도, 4년 만에 인구 ‘증가세’
내고장 추수갯기 운동 등 정책 효과

10

조간 제783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음력 4월 15일)

막 오른 조기대선...‘22일간 대권레이스’ 스타트

선례! 6·3 대선 D-22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올라 후보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6·3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22일간의 레이스를 펼친다.

▶관련기사 2·3·4·15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영남권 제1 도시 부산에서, 이준석 후보는 새벽에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각각 첫 공식 유세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이번 조기 대선은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이끄는 리더로 누가 적합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 회복’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에 달했고, 이어 국민 통합(17%), 개헌 등 정치 개혁(12%),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 등이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통산 3사 제공 휴대만 가산 번호 이용 전화 면접. 응답률은 16.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이재명 후보 12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첫 공식 유세에 나선다.

민주당 선대위 조소래 공보단장은 “광화문은 ‘빛의 혁명’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과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7명 후보 등록...경제회복·국민통합 이끌 지도자 열망

이재명 서울·김문수 부산·이준석 여수 ‘첫 공식 유세’

성장으로 바로 세우는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다.

당 중앙선거대위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태극기가 아닌 진짜 태극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대위 김영호 후보본부장은 “첫째는 내

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둘째는 파탄 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도약할 세계 주도 국가 건설, 마지막은 경제와 통합으로 성과를 만들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 부각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후보 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후보등록 기간 첫날인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말리며 화제를 모았던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배우 이관훈 씨 등과 함께 후보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일 부산에서 첫 유세에 나선다.

김 후보는 부산 일대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종의 출정식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서 두 번 부산을 방문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부산과 경남을 방문하면서 많은 국민의힘 당원과 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두고 지난 10일 실시한 전 당원 대상 ARS 투표에서 후보 지위를 되찾았다.

▶2면에 계속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AI 영재학교, 북구 오룡동에 설립

부지면적 2만3138㎡ ...과학기술 인재양성 거점 도약 기대

정부가 2027년까지 광주에 인공지능(AI) 영재 학교를 설립하는 데 665억원을 투입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

광주 AI 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에 부지면적 2만 3138㎡, 지하 1~지상 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지난해 8월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비 466억원 등 665억원을 투입, 2027년 개교 예정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한

다. AI 영재고 총 150명의 학생을 모집해 학점제·무학년제 적용, 인공지능(AI) 분야 특화교육 및 GIST 연계·협력 프로그램 도입, 학교장 자율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립 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마이크로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라기술 분야 특화 영재학교로 육성된다.

AI 영재고가 건립되면 AI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영재고 주변으로 국가 AI 데이터센터, 실증·창업시설 등 AI 집적단지를 비롯해 AI 지식산업

센터,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AI 융복합지구에는 첨단 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다. 사업부지 111만㎡에 기업용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을 조성 중이다.

총괄위는 이와 함께 환경부의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7개월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새 교황에 프레보스트 추기경 가톨릭 역사상 첫 미국인 선출

전세계 14억 가톨릭교도를 이끌 새 교황에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사진)이 선출됐다.



11일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로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는데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레오 14세’는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톨릭 역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기도 한 ‘레오 14세’는 1955년 미 시카고 태생으로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으로 이 수도회 소속 첫 교황이다.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 바티칸 시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다경 기자 alsqldl94@

5월 17~18일 지하철 무료 운행

광주도시철도, 카드 찍어도 요금은 0원

광주교통공사는 제45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5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광주도시철도 무료 승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광주도시철도 이용 시 평소처럼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어도 요금은 0원 처리되며,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은 각 역 고객센터에서 우대권을 받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도시철도 무료 승차로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 등 5월 유적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광주 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료 승차는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적용되며 마을버스나 전남농어촌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

- 전남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서비스 “**종합돌봄센터**”
- 갑작스런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긴급돌봄전화(☎1522-0365)**”
- 농·산·어촌을 찾아 의료·복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물류센터**”
-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상황 안전대책 통합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을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도서지역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 “**섬·섬 프로젝트**”
-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스마트빌리지**”
-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2 전남사회복지회관 3층 문의: (061)287-8124